

한마음한몸

30th Anniversary
30
한마음한몸운동본부
1988-2018

2018 봄호 | vol.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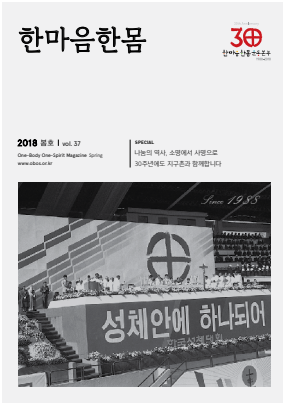
One-Body One-Spirit Magazine Spring
www.obos.or.kr

SPECIAL

나눔의 역사, 소명에서 사명으로
30주년에도 지구촌과 함께합니다



COVER STORY



1989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44차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된 '한마음한몸운동'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시초로, 오늘날까지 지구촌에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ince 19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이라는 대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헌혈, 헌안운동을 벌이며 교회와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50여 개국을 대상으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ONTENTS

3 공감 속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창립 30주년

4 함께한 30년, 고맙습니다

6 나눔의 역사, 소명에서 사명으로

함께하는 기도

8 세계의 난민과 이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획특집

9 30주년에도 지구촌과 함께합니다

12 반티에이브리업, 저를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누고 싶은 글

16 새로운 나의 발걸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9 나눔은 소명입니다

20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22 한마음한몸 새 소식

통권 37호 | 2018년 봄호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일 2018년 봄

편집·디자인 슬로워크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T 02)727-2288

E obos@catholic.or.kr

 www.obos.or.kr

 facebook.com/oboscorea

 onebody_onespirit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홈페이지(www.obo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공감 속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라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 동안 한마음한몸운동이 이어져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난 30년간 성체성사의 정신을 세상에서 실현하고자 헌혈이나 입양, 장기기증, 우리농촌살리기운동, 대북 지원, 환경사목 등의 씨앗을 뿌리고 키우고 성장시켜왔습니다. 아울러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전환하여, 전 세계 50개국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해오는 등 많은 성과를 일궈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국제 비정부기구(NGO)가 활동하는데도 우리의 지구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본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마음한몸운동의 취지를 어떻게 잘 살려 나갈지, 또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읽어내고 응답할지, 가톨릭 정신으로 우리가 사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30년간 쌓아 온 성과를 잘 이어나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막중하지만, 함께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힘차게 제2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하느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들의 사랑을 이웃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공감 속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본부의 우선적 목적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최형규 미카엘 신부

함께한 30년, 고맙습니다

Thank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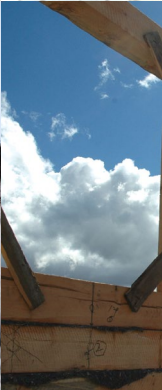
1988년,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를 앞두고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을 위해 설립된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몸으로, 한결같이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부는 주어진 비전과 사명을 바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 고통받고 소외된 지구촌 모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빈곤을 없애고 사회정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일합니다.
-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며 생명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여 생명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합니다.
- 나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림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합니다.





나눔의 역사, 소명에서 사명으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달려온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30년은 곧 한국 사회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확산해가는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모았습니다.



1 세계성체대회의 가장 큰 성과로 시작한 한마음한몸운동

198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4차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된 '한마음한몸운동'은 세계성체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핵심이 되었으며, 지구촌 전체에 지속적으로 성체성사의 정신을 심는 운동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1988년 9월, 명동성당에서 첫 번째 공개헌혈이 실시되다

한마음한몸운동이 시작될 당시, 우리나라에는 혈액의 양이 부족하여 필요한 혈액의 3분의 2 가량을 사거나 수입해야 했고, 수많은 환자가 장기기증자의 부족으로 생명을 잃거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의 헌혈·장기기증운동은 한마음한몸운동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3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세계성체대회 준비를 통해 마련된 원조 기금의 운용은 1990년 6월, 이란에서 일어난 강진(25만여 명 이상의 사상자, 수십만 명의 이재민 발생) 피해 회복을 위한 5만 달러의 원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촌을 향한 관심과 도움은 오늘날까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사업(p. 9), 교육 및 연대 활동 등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으로 나눔의 일상화를 꿈꾸다

2003년 9월, 본부는 끼니 때마다 한 줌의 쌀을 예수님 묘으로 떼어내는 것에서 시작한 헌미헌금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을 통해 누구나 1년 내내 실천할 수 있는 나눔운동을 확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새롭게 태어난 장기기증운동

전 서울대교구장이자 본부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은 한마음한몸운동의 헌안 및 헌혈운동에 동참하고자 1990년에는 각막기증, 2006년에는 장기기증을 서약했습니다. 2009년 2월, 김 추기경의 선종과 각막 기증 이후 교회 안팎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09년 4월 6일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가 개관하였습니다.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는 현재까지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신청 및 상담,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더는 혼자 아 아니에요', 자살예방센터 개설

2010년 3월 22일,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자살 사망자 수(2008년 기준), 특히 청소년 자살이 증가하는 사실을 목도한 본부의 결정이었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상담, 상담봉사자 교육, 자살유가족 모임부터 각종 토론회, 심포지엄과 종교연합 캠페인까지 그 활동의 폭을 꾸준히 넓히고 있습니다.

6



7



앞으로의 30년을 향해

백혈병, 난치병 환자지원 누적금액 총 10억 원 돌파(2010년), 생애첫기부 1,000번째 가족 탄생(2013년), 조혈모세포 500번째 실기증자 탄생(2017년). 본부의 이름을 통해 달성한 기적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본부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의 30년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세계의 난민과 이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류의 창조주이신 주님

갖은 핍박과 고통으로 고향을 떠나
안정된 주거지를 찾아 헤매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해주소서

특히 생존의 위협에 처한
난민과 이주민들이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아멘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오 25,40)”

전 세계에서 재난, 분쟁, 정치적 박해 등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거나 난민으로 사는 사람은 약 6,530만 명에 달합니다. (UNHCR, 2015) 특히 시리아, 수단, 콩고 등 내전이 극심한 중동과 아프리카 일대에서 대규모 난민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넘거나 바다를 건너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안전한 곳에 도착한 이들도 물과 식량 부족, 전염병 창궐 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세계 모든 난민과 이주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루속히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30주년에도 ●
지구촌과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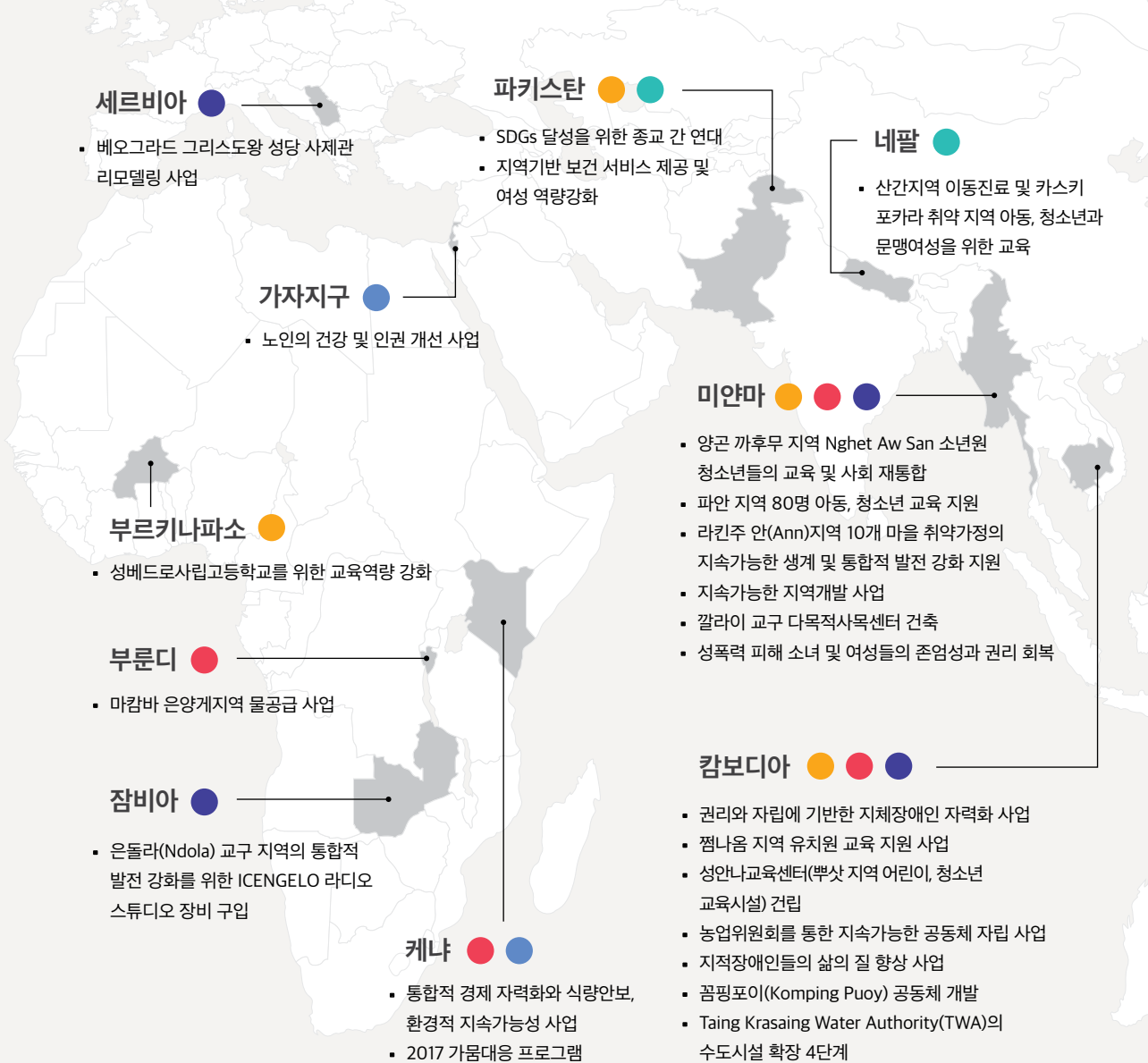
30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당장 내 옆에 있지 않아도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지역사회에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일회적 지원을 지양하며,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의 온전한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각 나라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면서, 되풀이되는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크고 작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행복의 씨앗이 되어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촌 곳곳의 어려운 이웃이 꿈을 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은 이들에게 커다란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



2018년도 국제협력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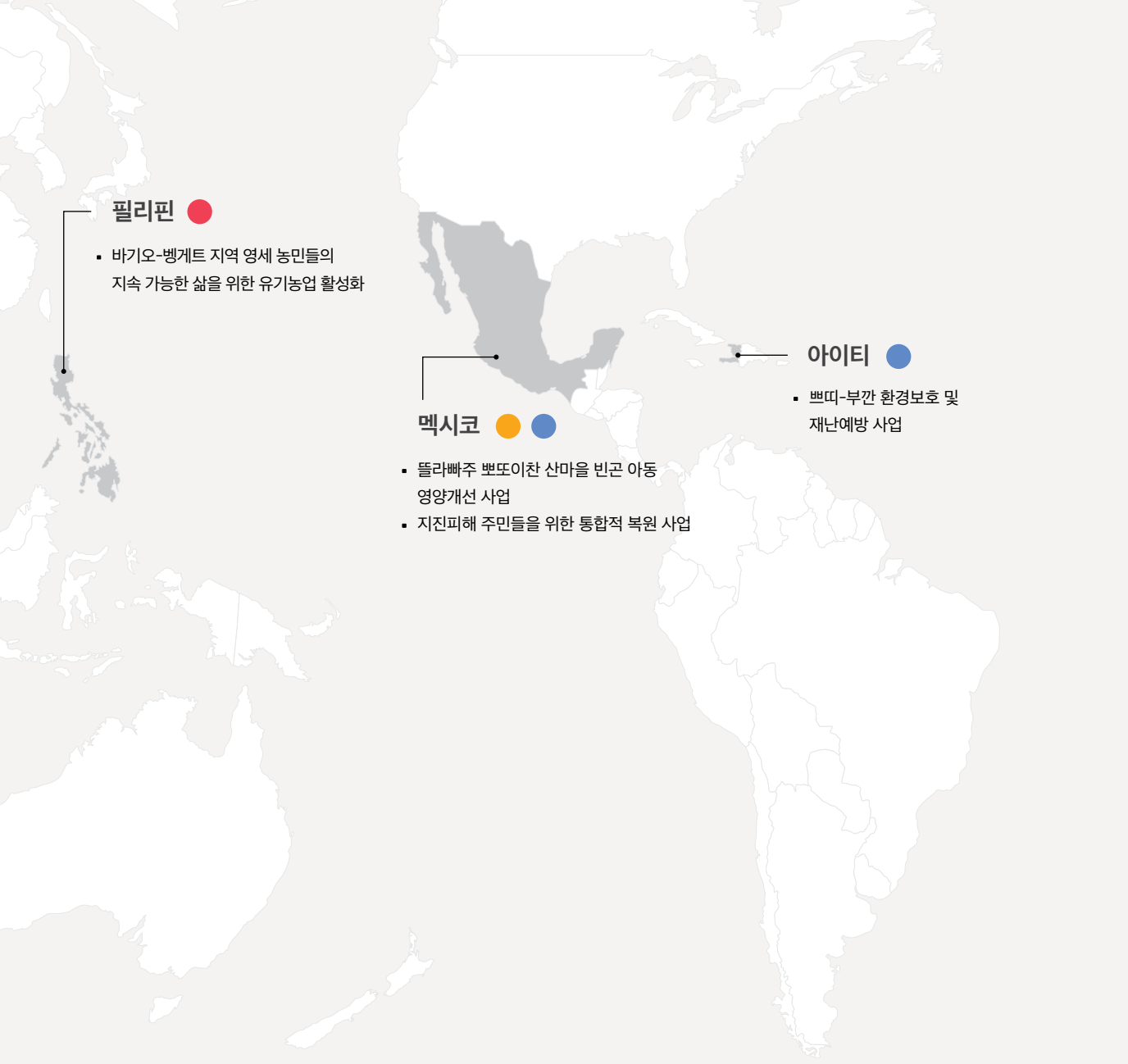
교육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지만 아직 많은 어린이가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본부는 멕시코, 미얀마,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파키스탄에서 지역사회를 도와 학교 등 교육시설의 운영과 기자재 개선, 교사 교육을 지원합니다.



보건의료

수백만 명의 사람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쉽게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부는 네팔과 파키스탄에서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필리핀 ●

- 바기오-벵게트 지역 영세 농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유기농업 활성화

아이티 ●

- 뽀띠-부간 환경보호 및 재난예방 사업

멕시코 ● ●

- 플라빠주 뽀띠이찬 산마을 빈곤 아동 영양개선 사업
- 지진피해 주민들을 위한 통합적 복원 사업



지역개발/생계지원

빈곤은 단순히 굶주리는 상태를 넘어 필요한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부는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케냐, 필리핀의 이웃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영세 농부들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도적지원

가자지구의 분쟁지역, 멕시코의 지진현장, 아이티의 환경보호와 재난예방 현장, 케냐의 가뭄 현장. 본부는 이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식량과 깨끗한 물, 보금자리와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이 진정되면 피해 주민들의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해외특별지원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규모 형태의 사업들 중 시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의 존엄성과 권리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대규모 수도시설 확장 프로젝트 등을 미얀마, 세르비아, 잠비아, 캄보디아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반티에이브리업, 저를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제자원활동 장기봉사자 김여름 단원 인터뷰



사업구분: JSC_Banteay Prieb 권리와 자립에 기반한 지체장애인 자력화 사업
단원: 김여름 글라라
파견기간: 2017년 2월 28일 ~ 2018년 2월 11일
파견지: 캄보디아 견달, 반티에이브리업(장애인지업훈련센터)

안녕하세요, 우선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2월 말부터 올해 2월 초까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소속으로 캄보디아에서 나눔 활동을 마친 김여름 글라라입니다. 비둘기센터 혹은 평화센터라는 뜻을 지닌 반티에이브리업에서 생활하고 일했습니다. 처음엔 길게 느껴지던 1년이었는데 그곳에선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간 것 같네요.

어떻게 처음 본부를 통해 활동 지원을 하게 되었나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JSC(캄보디아 예수회 봉사단)의 이전 책임자였던 오인돈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중학생이던 저는 천진 한인 성당에서 성가대 단장을 맡으셨던 박언영 카타리나 선생님과 보좌신부님으로 계셨던 김태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을 통해 반티에이쁘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그곳의 사진이나 영상을 접했습니다. 무척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느껴져서 나도 언젠간 그곳에 가보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교를 졸업한 저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내면이 점점 더 삭막해져 간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조건 없이 행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던 중 캄보디아에 가자는 친구의 제의를 듣고 그곳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시각장애인 센터에 몇 번 가본 것 외에는 자원활동의 경험이 없던 제게 이번 활동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면이 있네?' 하며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활동한 나라와 지역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처럼 오래된 문화유적으로도 유명하지만 미국의 폭격과 오랜 내전,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훈센 총리의 독재로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견달 주에 있는 반티에이쁘리업에서 지냈는데요, 견달은 수도인 프놈펜 바로 옆에 있는 주(州)이고 반티에이쁘리업은 프놈펜 국제 공항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앙스놀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느낀 캄보디아는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있지만, 인프라가 약하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만난 캄보디아 분들은(특히 마을 주민 분들은) 가족을 중시하고 정이 많으며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반티에이쁘리업은 장애가 있는 성인들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기술을 배우는 센터입니다. 약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일년 정도 함께 공부하며 살아갑니다. 재봉반, 기계반, 전자반, 휴대폰 수리반, 미용반, 농업반, 특수교육반(지적장애반)으로 나뉘어 기술훈련을 받고 졸업 후엔 관련된 가게를 열거나 취직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처럼 센터를 지원하는 기부 단체들에 제안서나 보고서를 쓰고 센터 소식지를 만들어 분기별로 발간하거나 센터 SNS를 관리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는 손님들이나 단기해외활동가들에게 센터 안내를 하고 특수교육반에서 보조 강사도 했습니다. 저는 소식지에 실기 위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는 일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듣지 못했던 센터 생활이나 공부에 대한 다양한 생각, 사람마다 다른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고 흥미로웠습니다.



재봉반의 학생들



현지에서의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인가요?

매년 12월에 있는 졸업식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고 운동회도 하며 졸업 축하파티를 엽니다. 졸업식 몇 주 전부터 학생들은 서로를 더 챙기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졸업 이후 먹고 살 걱정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정든 학생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아쉽고 슬펐습니다.

졸업장을 전달할 때는 장하고 감격스러웠다가, 운동회를 할 때는 마냥 웃기고 즐거웠습니다. 졸업축하 파티를 하며 춤을 출 때는 이게 이 학생들과 함께 추는 마지막 춤이라고 생각하니 서글퍼졌습니다.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한 모든 학생들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했고 그만큼 제일 선명하게 기억나는 날입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졸업식 파티에서

현지에서 있는 동안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반티에이브리업의 전교생, 전 교사, 전 직원이 함께 떠난 바다 나들이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일년에 한 번, 매년 6월에 버스 두세 대를 빌려 깜뽕싸움에 있는 바다로 다 같이 놀러 갑니다. 바닷가에서 그렇게 잘 노는 친구들을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봤습니다. 휠체어와 목발을 벗어 던지고 파도에 몸을 맡기거나 고무튜브에 네다섯 명씩 매달려서 물놀이를 합니다. 나무줄기로 줄넘기를 하거나 모래 위에서 축구도, 씨름도 했습니다. 마지막엔 노래를 크게 틀고 해변에서 다같이 춤을 쳤습니다. 한쪽 발이나 손이 없다고, 휠체어를 타거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즐겁게 놀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도와 계단이 있으면 휠체어 탄 친구들을 밀어주고, 손이 불편한 친구의 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평생 처음으로 바닷가를 와보았다며 가장 행복했던 학교 행사를 이때로 꼽았습니다. 저도 가장 가슴이 벅차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현지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쏭클랭’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쏭클랭 선생님은 12살 때 지뢰사고로 두 다리를 잃으시고 반티에이브리업 전자반에 입학하셔서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문해반을 가르치시며, 제 크메어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어뿐만 아니라 삶에서 중요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는 공부하는 중에 개미가 선생님 팔에 올라왔습니다. 선생님이 후 하고 불어 날리시길래 왜 죽이지 않으시냐고 물었더니 살아있는 것은 작든 크든 소중한다고 되도록 살생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개미뿐만 아니라 지겨울 정도로 많은 모기와 날벌레에게도 너그러우십니다. 그러니 학생들을 얼마나 애정으로 돌봐주실지 상상이 가시죠?

하루는 제가 감기에 걸려 열이 심했습니다. 그날 학생들과 선생님 옆에 누워 잤습니다. 제가 잠들 때까지 선생님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시고 마사지해주시고 약을 발라 주셨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마음이 먹먹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집이 그리울 만한데 제게 엄마와도 같은 분이 곁에 계셔서 항수병 걸리는 일 없이 잘 지낸 것 같습니다.





**활동 후 목격하게 된 이곳의 변화가
있나요?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나누어주세요.**

학생들의 변화와 건물의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반 앞에는 새 건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소셜스킬센터(Social Skill Center)인데, 레스토랑 겸 카페로 만들어서 특수교육반 학생들이 주문을 받고 요리하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 뼈대가 생기더니 어느새 완공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보입니다. 일년 동안 공부하며 직업기술도 배우지만 자신감이나 사회성도 함께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전자반의 '위즈나'라는 학생은 처음 학교에 왔을 때 부끄럼이 많아 주로 휴대폰을 보거나 통화만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같이 춤추는 시간에도 춤을 출 줄 모르다며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휴대폰을 보는 대신 다른 학생들과 휠체어를 타며 농구를 하고 춤도 열심히 추었습니다. 말도 많아지고 표정도 아주 밝아졌습니다. 위즈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훨씬 자신감 있고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을 하며 고마웠던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반티에이브리업 커뮤니티 식구들, 예수회 신부님 수사님들, 선생님, 직원, 학생들 모두에게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하고 애뜻한 마음이 듭니다. 저를 사랑해주고 제 사랑을 받아주셔서, 길거리에 굴러다니던 저를 붙잡아다 아끼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한 한 해였고 앞으로도 계속 인연 이어가고 싶어요. 어쨌든 짝꿍이러 빼일꼬라오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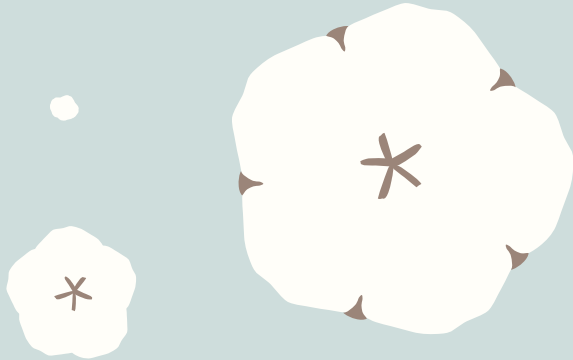
항수병을 잊게해 준, 쓱클랭 선생님



서로를 돕는 일이 자연스러운 친구들

새로운 나의 발걸음

김OO (익명)



당신이 있는 그곳은
언제나 따뜻하기를 바라며...

본 수기는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를
직면하고 생명존중사회를 이루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최한
‘자살사별자수기 공모전’에 응모된 작품입니다.
이 수기의 나눔이 자살 유가족들의
슬픔을 보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밑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기를 게재할 수 있게 해주신
중앙자살예방센터, 수기 응모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눈이 온다. 뒷산 쪽 창문을 열고 눈송이들을
바라본다. 며칠 전까지도 알록달록 물든 단풍이
산 전체를 수놓고 있었는데, 문득 다른 세상 같다.
가지들만 남은 앙상한 숲에 눈송이들이 흩날리며
나부낀다.

해마다 남편은 나보다 먼저 첫눈을 발견했다. 때로는
바로 옆에서, 때로는 전화로 나를 부르며 말했다.
“OO씨! 눈이 와요, 눈이 와! 얼른 하늘을 봐요! 저
구름에 얼음이 박혀 있어! 눈 보고 있어요?”

17년을 함께 살면서 첫눈 소식을 알리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째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게 실감나지 않는다. 첫눈을 보며 기뻐하는 그의
모습이 떠오르며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난다. 보고
싶다. 살아 있으면 좋겠다. 아무리 미워하려 해도
미워지지 않는 얼굴, 내 손으로 쓰다듬을 수 없는
얼굴, 애달프고 눈물이 난다. 130살까지 살다가 죽어
다시 태어나도 부부가 될 거라고 말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가슴 깊은 곳에 슬픔과 고통과 안타까움으로
남게 되었을까. 지난 7년 동안 그 질문과 함께 살아온
것 같다. 아스라하기만 하고 잡히지 않을지라도
답을 찾고 싶었다. 언젠가는 그 답 안에서 살기를
희망해왔다.

7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수화기 너머에서
들어야 했던 순간의 충격은 말할 수 없었다.
자살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경찰서를 거쳐 영안실로, 누구와 어떻게 이동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병원이 생긴 이래 조문객이 가장
많이 와서 건물에 두 번 세 번 줄을 겹쳐 섰는데
그 광경을 본 기억도 없다. 목에 아름다운 레이스를
두르고 잠자는 듯 평화로운 내 남편이 왜 죽었던
말인가. 복적이며 오가는 사람들은 검은 그림자로만
보였다. 세상은 암흑이, 함정이 되었다. 오직 남편만
빛같이 보이고 살아 있는 것 같았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와 상관없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남편을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온 밤. 남편의 자리가
텅 비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 결코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를 보호해야 해.
다치면 안 돼. 두 아들을 지키려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는 온갖 의문과 의혹에 휩싸인 채 자신을 책망했다.

일이 있기 이를 전, 우리 네 가족은 양재천을 산책하며 앞날을 계획했다. 회사에서 두 달여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곧 그만두고 새롭게 살 날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말잇기 놀이를 할 때 남편이 자꾸 놓치거나 틀려서 멈춰 섰다. 그는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순간을 지나쳤을까. 왜 더 묻지 못했을까. 혹시 내가 크게 웃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그가 실망하고 좌절했을까. 다 내 잘못이다. 회사에 못 가게 잡아야 했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는 몹부림쳤다.

밤이면 두 아들을 껴안고 광막한 우주에 떠다니는 배처럼 정처없이 흘러 다녔다. 자리에 누우면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갔을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밀려왔다. 그토록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너무나 불쌍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오직 나의 따뜻한 손이 꼭 필요했을 순간, 붙잡아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후회가 나를 덮쳤다. 안타까움과 그의 고통이 버무려져 내 몸을 관통했고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단 한 번만, 순간이라도, 살아 만날 수 있다면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붙잡을 거야. 끝까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돌아와 줘.’ 그러다가 언뜻언뜻 잠이 들었다.

한 달여 동안 형제자매들은 당번을 정해 우리 집에서 지냈고 친구들이 사망 절차를 밟아갔지만, 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웃들은 반찬을 만들어오고, 두 아이와 함께 아빠처럼 잠을 자주고 만나면 안아주고,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친구를 영원히 기억하고 두 아이를 보살피겠다”던 남편의 친구분들은 지금까지도 아이들과 함께 꽃을 들고 남편의 묘지에 가고 밥을 사주고 돈을 보내주고 안부를 묻는다. 그래야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단다. 시부모님은 아들을 잃은 큰 고통을 겪으셨으면서도 나를 다독이고 용기를 북돋아주셨다. 친정어머니도 끝까지 우리 가족을 응원해주신다. 이웃, 친구, 가족, 이 모든 분들 또한 엄청난 충격과 고통 속에서 나와 두 아들을

돌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은 변함없이 사랑과 우정과 관심이 흐르는 곳임을 조금씩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다.

살고 싶었다. 남편과 남은 두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남편이 남기고 간 나날들을 잘 살아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 따라다녔고 그래서 때때로 불안이 엄습했다. 더욱 힘들었던 건, 두 아들에게 아빠가 자살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었다. 그 비밀이 나를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갔다. 큰 아이 15살, 작은 아이 11살. 아빠 없이 생활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싶었다. 나부터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대화 공부를 계속했지만, 자살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조차 무서웠다. 두 아이에게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전해야 할지 늘 조바심이 들었다. 일상에서도 보호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밤마다 집안의 불을 끄지 못했다. 아이들이 내 시야에서 안전한 상황을 확인해야만 겨우 마음이 놓였다.

5년이 지나서야 남편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고 싶어 몇몇 사람을 만나거나 통화를 했다. 두 아들이 아빠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논하고 싶어서였다. 그래야 비극이 대물림되지 않을 것 같았다. 당시 남편은 회사에서 격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다르게 살고 싶어했으며,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늘 아픔으로 남아 있지만, 이렇게 부인이 직접 찾아오시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자기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아들을 만날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어른들이 두 아들에게 아빠가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며,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하여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도 무지와 불찰 때문에 위기 상황을 놓쳐 미안하다는 말을 함께 해주길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좌절을 느꼈다.

자살은 이전의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지독한 편견이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누구도 그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일 수 있다는 자각이

생겼다. 출구를 찾지 못한 내 고통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장막을 친 이유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자살을 예방하는 것 외의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아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한 사람에게라도 자살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열심히 찾았다. 징후를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어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심리부검을 발견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 들어서기가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면담을 마치자 홀가분해졌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연 기분이었다.

무엇보다도 내 힘의 원천인, 남편과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조차 이미 죽은 사람 이야기라며 듣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릴 때의 외로움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기뻛다. 자살자와 유가족의 사회적 낙인을 거부해왔던 내 마음의 속 외침, 누구에게도 모욕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삶 자체 또한 존중받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참여했던 인터뷰나 몇몇 행사와 달리, EBS 다큐멘터리 팀의 제안으로 미국에서 열린 '세계자살예방의 날' 행사에 실명으로 참여했다. 미국 전역에서의 행진에서, 먼저 떠난 자살 희생자의 삶을 존중하며 마음껏 추억을 표현하는 점이 내게 자유와 해방감을 주었다. 살고 싶었을 자살 희생자의 삶을 살아남은 유가족들이 제각각 나름대로 생기 있게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축제처럼 여겨졌다. 차별 없이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위로가 되는 관계의 가능성을 삶에서도 매순간 펼치고 싶었던 내 깊은 욕구와 연결되어 반갑고 흐뭇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었던 점은,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두 아들에게 아빠의 자살 사실을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기분을 공유했다는 사실이다. 내가 비밀의 문을 힘겹게 열었을 때, 아들들은 각각 이렇게 반응했다.

큰 아들: 아빠의 죽음을 생각할 때 뭔가 멧힌 게 있었는데 빗장이 풀린 기분이다. 엄마가 왜 그토록 애썼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다. 누군가가 먼저 세상에

유가족임을 알리고 표현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그 사람이 엄마라면, 나는 더욱 지지한다.

둘째 아들: 혼란스럽다. 살아 있을 때도 돌아가셨어도 아빠를 사랑한다. 엄마가 힘들까 걱정된다. 아빠가 어떤 장애물을 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슬프지만, 나는 넘어가겠다. 아빠를 사랑한다.

여름방학 때부터 일주일에 두 시간씩 자발적으로 시간을 조율하며 가족대화모임을 가진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축하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우리 가족대화모임을 앞으로도 계속 편안하고 즐겁게 이어갈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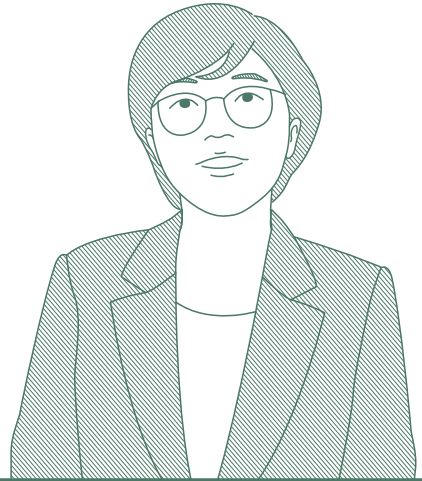
이제는 나 자신의 진실한 마음과 일치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 남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회한을 넘어 내 삶에서 서로 보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면 보람 있고 기쁠 것이다. 세상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싶은 나에게 백종우 선생님의 유가족 자살예방강사 제안과 소중한 말씀은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된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첫눈이 그친 나지막한 뒷산에 들어서니 가지만 남긴 앙상한 나무들이 나를 맞는다. 상수리나무 아래에는 상수리나무잎이 수북하고 도토리나무 아래엔 도토리나무잎이 두툼하다. 저마다 햇빛과 물과 공기의 충만함과 그리고 비바람과 폭풍을 순순히 받아들였던 추억들을 제 몸 아래 덮고 있는 나무들의 산. 공중의 삶이 부피를 줄여 땅의 현실로 내려와 새 봄을 기다린다. 나뭇잎들은 흑한의 겨울 동안 뿌리를 따뜻하게 덮어주면서 썩어갈 것이다.

나는 이 낮은 산에서 봄의 새싹을, 여름의 무성함을, 그리고 가을의 알록달록함과 겨울의 폭신함을 보아왔으니 다시 펼쳐질 계절들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과거의 추억이 우리의 또 다른 건강하고 새로운 미래가 되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눔은 소명입니다

노현경 세실리아 님



※ 본 콘텐츠는 가톨릭 비타콘 2017년 12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것은 본인 중심, 잘하는 것은 하느님 중심이라는 점 아닐까요. 하고 싶은 것은 ‘욕심’일 수 있고 잘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신앙인의 삶은 이 둘을 잘 식별하며 하느님께서 주신 ‘잘하는 것’, 즉 талан트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가명유치원 노현경(세실리아, 서울대교구 명동주교좌본당) 원장은 ‘나눔’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소명’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것 같습니다. 사랑을 실현하려면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며 구원 사업을 완성하셨듯, 사람도 나눠야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노 원장은 이러한 나눔 철학을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아이들이 직접 모은 저금통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해왔습니다. (2013년 국내외 백혈병 환아돕기, 2014·2015년 부룬디 학교 짓기 사업, 2016년 바보의 나눔, 2017년 ‘산타가 되어 주세요’ 캠페인 후원)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 같아요. 이 도화지에 예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부모와 선생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직원분들이 유치원을 방문해서 나눔교육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돕게 될 부룬디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등을 들으며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나눔의 자발성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노 원장은 갈수록 나눔에 대한 마음이 말라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쉽게 쓰고 버리는 것에 익숙해져 안타까움이 큼니다. 그래서 그는 돈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어도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할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신앙교육이고 신앙교육이 곧 인성교육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나눔을 실천할 수 있잖아요. 아껴 쓰기,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하기, 친구들이 어렵다고 말하면 도와주기, 친구 칭찬하기 등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노 원장은 나눔 교육 외에 개인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본당 선교부에서 예비신자 교리학교 봉사자로 활동했고, 매주 수요일 새벽미사 해설도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요청할 때마다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해왔습니다.

“봉사를 통해 주는 것 보다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봉사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아이들도 잘 성장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더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67



김리우 올리안나



이승연, 이희담

생애첫기부

고다현 2017.03.15생 父 고성근 母 이연주 | **고하연** 2015.03.28생 父 고규봉 母 이경민 | **고유진 라파엘라** 2017.01.17생 父 고태영 母 최내리 | **고은샘 헬레나** 2017.01.14생 父 고성일 母 정서경 | **곽환희 베네딕도** 2017.04.01생 父 곽재혁 母 김현정 | **권진 그레이스** 2016.01.31생 父 권선형 母 최정윤 | **기동건** 2017.12.01생 父 기정환 母 유윤지 | **김가윤** 2017.09.01생 父 김효상 母 이주영 | **김규태 라파엘** 2015.10.27생 父 김성일 母 전평화 | **김도담(태영)** 父 김형태 母 김빛나 | **김도영 라파엘** 2017.09.29생 父 김한상 母 이예슬 | **김도윤** 2016.01.12생 父 김현호 母 박인영 | **김도훈** 2016.01.12생 父 김현호 母 박인영 | **김민경 그라시아** 2017.02.15생 父 김영기 母 남상주 | **김민서 마더데레사** 2014.05.31생 父 김성후 母 박경희 | **김민재** 2017.10.23생 父 김태형 母 정승연 | **김민재 마카엘** 2012.05.23생 父 김성후 母 박경희 | **김민준 아론** 2016.08.31생 父 김성호 母 최보규 | **김산** 2017.01.16생 父 김영복 母 이수하 | **김서원 라파엘** 2016.12.09생 父 김태희 母 박미영 | **김서은 에스텔** 2017.11.20생 父 김범석 母 윤지현 | **김서준** 2013.01.05생 父 김지민 母 박혜선 | **김선우 니콜라오** 2016.12.05생 父 김준두 母 홍민주 | **김선우 레오** 2017.01.16생 父 김무영 母 이경선 | **김세아 세레나** 2016.12.07생 父 김희용 母 김희정 | **김세은 소피아** 2012.09.04생 父 김희용 母 김희정 | **김세준 발렌티노** 2017.02.14생 父 김경환 母 조효린 | **김소현** 2016.12.30생 父 김창호 母 박민정 | **김예영** 2017.09.12생 父 김용현 母 김혜성 | **김예준** 2017.09.12생 父 김용현 母 김혜성 | **김이수 라파엘** 2017.11.20생 父 김범석 母 윤지현 | **김채원 마카엘라** 2011.01.03생 父 김종기 母 김지인 | **김태윤** 2015.02.26생 父 김경수 母 최화진 | **김하영 베드로** 2017.11.13생 父 김배례 母 권민지 | **김하진** 2017.02.14생 父 김홍석 母 정지연 | **김하람** 2017.03.16생 父 김환중 母 이사슴 | **김효은 프란치스코** 2016.11.23생 父 김봉근 母 오혜련 | **남이현 라파엘** 2016.11.24생 父 남기현 母 김은영 | **노하준** 2017.02.07생 父 노종민 母 김민정 | **류민혁 루카** 2010.08.02생 父 류진호 母 고나연 | **류윤서 엘레이다** 2013.06.15생 父 류진호 母 고나연 | **류제준 라파엘** 2017.01.05생 父 류영현 母 정재경 | **모아진 로사** 2017.09.27생 父 모상혁 母 장은지 | **문도유 안드레아** 2015.12.21생 父 문정운 母 박규남 | **문시우** 2017.10.31생 父 문규선 母 구소정 | **문정현 스테파노** 2017.02.27생 父 문성원 母 이아름 | **박각을 로즈마리** 2016.03.12생 父 박민우 母 이경진 | **박서울** 2017.02.08생 父 박은규 母 안세은 | **박서현** 2016.11.01생 父 박창환 母 유현주 | **박소을 제노베파** 2017.01.02생 父 박영준 母 오하야 | **박시준** 2016.12.05생 父 박종승 母 정수민 | **박찬우** 2016.01.17생 父 박재홍 母 채지영 | **박현우 티모테오** 2017.10.20생 父 박승연 母 박수현 | **배지원** 2017.06.29생 父 배현일 母 권지영 | **최환영** 母 공영수 | **서지을 스콜라스티카** 2017.02.02생 父 서현석 母 지소영 | **손재윤 다윗** 2016.12.11생 父 손용진 母 조아라 | **송민호** 2015.06.05생 父 송석준 母 박희선 | **송에서** 2015.09.29생 父 송석현 母 박지선 | **송의진(태영)** 2018.01.04생 父 송창중 母 장정은 | **송이현 임마누엘** 2016.12.17생 父 송진우 母 유지애 | **송현아** 2011.08.20생 父 송인욱 母 박혜연 | **신민재 프란치스코** 2014.09.27생 父 신용진 母 김이훈 | **신아윤** 2017.03.17생 父 신용석 母 이미정 | **신우연** 2017.04.02생 父 신준호 母 김은경 | **신윤서 노엘라** 2011.12.25생 父 신경호 母 천수민 | **신윤재 스테파노** 2011.08.01생 父 신용진 母 김이훈 | **안솔 프란치스코** 2017.09.01생 父 안지영 母 정수현 | **안은서 에데나** 2017.01.11생 父 안영준 母 송희 | **안재현 루치오** 2011.01.13생 父 안희승 母 박아란 | **양소은** 2017.06.20생 父 양형진 母 박지은 | **양지호** 2017.10.11생 父 양영태 母 장은지 | **양하은 플로라** 2016.01.01생 父 양두영 母 김미선 | **염태윤 하삼바오로** 2016.09.25생 父 염정훈 母 박시원 | **윤라임 레아** 2017.01.17생 父 윤재환 母 최예나 | **윤서하 라파엘** 2016.07.25생 父 윤경호 母 최지윤 | **윤서호** 2017.02.02생 父 윤석인 母 이성아 | **윤지호 레오** 2017.01.17생 父 윤재환 母 최예나 | **이나린** 2016.11.04생 父 이창민 母 강혜리 | **이다현** 2016.12.20생 父 이동규 母 김소정 | **이서연 소피아** 2017.02.20생 父 이상현 母 허수연 | **이서영 아네스** 2016.01.26생 父 이수민 母 정연희 | **이소현 라이문도** 2011.01.04생 父 이상우 母 홍석원 | **이수아** 2017.01.23생 父 이영준 母 조아라 | **이승준 프란치스코** 2017.02.15생 父 이상학 母 이아름 | **이시안** 2017.01.10생 父 이수만 母 조미희 | **이시영** 2012.11.22생 父 이남훈 母 이아름 | **이시진** 2017.01.10생 父 이수만 母 조미희 | **이아을** 2017.01.21생 父 이명배 母 심진경 | **이은찬** 2016.12.09생 父 이주화 母 박은혜 | **이준은 임마누엘라** 2016.12.02생 父 이상홍 母 박수진 | **이준범** 2009.05.16생 父 이도규 母 나유순 | **이지서 루카** 2016.01.21생 父 이창우 母 강혜연 | **이지우** 2017.01.24생 父 이승일 母 정수연 | **이지호** 2017.01.05생 父 이준영 母 이아람 | **이진형 토마스모어** 2017.02.06생 父 이상용 母 신은영 | **이한 프란치스코** 2017.03.11생 父 이정준 母 김지은 | **이재우 마카엘라** 2017.09.26생 父 이창환 母 김정미 | **이하린 요한** 2016.11.27생 父 이경민 母 홍혜림 | **이희담** 2016.12.29생 父 이신석 母 송선 | **임다을** 2014.10.13생 父 임상길 母 장혜원 | **임도윤** 2017.05.28생 父 임형철 母 박사라 | **임리야 리아** 2017.02.09생 父 임은택 母 이주아 | **임선우 루카** 2017.02.14생 父 임병권 母 이정은 | **임소정 사라** 2016.10.11생 父 임종명 母 김설주 | **임우엽** 2014.11.14생 父 임성진 母 정경화 | **임하람** 2014.10.13생 父 임상길 母 장혜원 | **장민준** 2017.04.29생 父 장경국 母 유진아 | **정시우 라파엘** 2017.03.29생 父 정경용 母 조수현 | **정시우 마카엘** 2011.04.29생 父 정승희 母 변희정 | **정시욱 사도요한** 2007.09.20생 父 정현석 母 임하나 | **정아라 세실리아** 2009.03.06생 父 정승희 母 변희정 | **정아린 마르첼리노** 2017.01.19생 父 정현민 母 임남조 | **정우혁** 2017.01.27생 父 정재규 母 허연미 | **정우준 밀리안** 2017.02.09생 父 정화진 母 정혜원 | **정유연** 2016.09.07생 父 정동현 母 김미희 | **정진재 요셉** 2009.03.05생 父 정현석 母 임하나 | **정하람 프란치스코** 2016.10.10생 父 정경수 母 백경민 | **조서연** 2006.09.09생 父 조훈 母 정은영 | **조성후** 2009.11.08생 父 조훈 母 정은영 | **조아린 에데나** 2017.01.26생 父 조경준 母 이서은 | **조우리** 2016.12.19생 父 조진구 母 이현아 | **조우연** 2016.12.19생 父 조진구 母 이현아 | **조유진 아가다** 2017.03.16생 父 조범준 母 송지연 | **조윤 프란치스코** 2014.12.22생 父 조우연 母 정희준 | **조은채 보나** 2017.08.22생 父 조현민 母 안나윤 | **주성민 패트릭** 2008.04.15생 父 주상신 母 이현경 | **주준빈 필립** 2008.04.15생 父 주상신 母 이현경 | **차다운 플로라** 2016.12.28생 父 차준영 母 김혜정 | **채희광 마르코** 2010.03.20생 父 채대건 母 엄유진 | **채희산 루카** 2010.03.20생 父 채대건 母 엄유진 | **천에서** 2011.10.24생 父 천동일 母 김은영 | **최우성** 父 최정진 母 문지민 | **최은호** 2015.06.23생 父 최재현 母 이승은 | **최이현** 2017.11.11생 父 최대건 母 윤정미 | **최인서** 2017.02.16생 父 최정환 母 박은주 | **최지안** 2017.11.05생 父 최원영 母 임교선 | **최지원** 2016.12.10생 父 최수영 母 이주연 | **하주원 마리노엘** 2017.11.28생 父 하대용 母 유정은 | **한다니엘** 2016.10.02생 父 피재환 母 한소진 | **한지유 스콜라스티카** 2017.02.10생 父 한상석 母 박진선 | **한지호** 2017.01.14생 父 한상욱 母 채우미 | **허윤혁** 2016.12.09생 父 허동녕 母 김진희 | **허인혁** 2016.12.09생 父 허동녕 母 김진희 | **허지훈 스테파노** 2017.03.02생 父 허정희 母 김정연 | **홍재인** 2017.01.18생 父 홍석균 母 고은지 | **홍재하** 2017.01.18생 父 홍석균 母 고은지 | **황시연 루치아** 2017.03.24생 父 황용서 母 김유나

두 번째 기부

강유빈 마카엘라 2016.02.09생 父 강광훈 母 이혜민 | **김다인** 2017.02.05생 父 김경삼 母 이재은 | **김도윤** 2016.01.12생 父 김현호 母 박인영 | **김도훈** 2016.01.12생 父 김현호 母 박인영 | **김동규 루카** 2017.01.26생 父 빈센트 들로르 母 김태희 | **김동하 사도요한** 2010.12.04생 父 김현중 母 이주연 | **김리호 루치아** 2016.01.01생 父 김효승 母 최유리 | **김비성** 2017.02.06생 父 김광모 母 김나윤 | **김서현** 2014.01.12생 父 김성훈 母 권경아 | **김예연 라파엘라** 2015.11.02생 父 김진환 母 원해정 | **김은송 그라시아** 2017.01.08생 父 김명규 母 최인경 | **김정민 사도요한** 2015.12.23생 父 김효선 母 김혜성 | **김주형 임마누엘** 2011.03.01생 父 김희은 母 조윤선 | **김준 프란치스코** 2016.01.24생 父 김건 母 우정은 | **김지영 노엘라** 2014.12.25생 父 김영기 母 남상주 | **김찬유 요셉** 2015.06.26생 父 김덕윤 母 신선 | **김재아 보나** 2016.02.19생 父 김지민 母 정소희 | **김재윤 라파엘** 2014.12.12생 父 김상훈 母 장은진 | **김태빈 루카** 2012.10.08생 父 김진규 母 김정옥 | **김태윤** 2016.02.05생 父 김형서 母 김은정 | **나주원** 2015.12.15생 父 나경원 母 이진희 | **박건용** 2015.03.26생 父 박선주 母 류아림 | **성준호 베드로** 2013.10.25생 父 성동준 母 이지혜 | **성지호 세례자요한** 2013.10.25생 父 성동준 母 이지혜 | **송도윤 라파엘** 2016.02.07생 父 송혁준 母 전소영 | **송지아 에스텔** 2015.07.19생 父 송명근 母 조미영 | **안재니 마리넬라** 2014.12.21생 父 안주희 母 이지영 | **오하을** 2017.02.27생 父 오기영 母 이영배 | **유재현 마르첼리노** 2016.01.31생 父 유병욱 母 전병욱 | **윤석준 프란치스코** 2014.07.30생 父 윤찬현 母 한재희 | **이서원 쟈마** 2017.06.20생 父 이민우 母 허윤선 | **이유진 스테파노** 2016.03.14생 父 이윤원 母 석민주 | **이지우 하삼바오로** 2002.04.29생 父 이광영 母 서은주 | **이태민 사도요한** 2015.07.29생 父 이종섭 母 이정민 | **이혜나 노엘라** 2016.01.06생 父 이남근 母 최윤아 | **장도원 쟈마** 2010.11.29생 父 장재대 母 여은혜 | **장우진** 2011.03.25생 父 장현우 母 유선미 | **장하진** 2016.05.14생 父 장현우 母 유선미 | **장서은 에드윈** 2014.10.12생 父 장영준 母 한세라 | **장호진** 2013.04.03생 父 장현규 母 유선미 | **정세연 스텔라** 2013.06.12생 父 정병만 母 김영선 | **정영준 마카엘라** 2011.09.13생 父 정병만 母 김영선 | **정지오** 2016.01.22생 父 정찬관 母 채보애 | **조유빈 에밀리아** 2015.08.02생 父 조지훈 母 이수경 | **진익준 프란치스코** 2016.01.23생 父 진민호 母 김문주 | **최다연 마리넬라** 2012.02.29생 父 최정배 母 김은진 | **최민준** 2011.06.17생 父 최창환 母 최윤미 | **최우진 라파엘** 2015.12.28생 父 최병주 母 이경은 | **한지유** 2016.01.18생 父 한용기 母 이인경 | **황성하 요셉** 2016.03.05생 父 황재민 母 권유경



이혜나 노엘라



장우진, 장호진, 장하진



정아인 마르첼리노



조우리, 조우연

세 번째 기부

강서준 니콜라오 2014.12.20생 父 강동욱 母 김민경 | **강우정 가브리엘라** 2016.03.08생 父 강만보 母 채원영 | **구자균** 2015.01.12생 父 구동희 母 박민지 | **김단아** 2014.03.17생 父 김병철 母 구인희 | **김민석 가브리엘** 2012.12.27생 父 김성훈 母 정효주 | **김민진 가브리엘라** 2008.12.15생 父 김성훈 母 정효주 | **김서준** 2015.01.09생 父 김민한 母 류주영 | **김시우** 2013.01.08생 父 김종보 母 백소연 | **김홍은 프란체스카** 2015.02.24생 父 김명규 母 최인경 | **김주원 프란체스카** 2014.02.18생 父 김기홍 母 광수영 | **김지유 비비안나** 2011.09.09생 父 김동영 母 최은숙 | **노이진 마리아** 2015.02.17생 父 노상범 母 소유희 | **류연서** 2014.03.11생 父 류만형 母 김소연 | **박서진 프란체스카** 2015.01.08생 父 박보현 母 서지은 | **박소울** 2011.09.21생 父 박선주 母 류아림 | **박수빈 엘리사벳** 2002.07.02생 父 박현 母 임영 | **박수완 레오** 2004.06.09생 父 박현 母 임영 | **박수현 안드레아** 2015.12.02생 父 박동현 母 정미영 | **박준호** 2015.02.24생 父 박진우 母 박지은 | **서도연 소화테라사** 2013.10.01생 父 서정주 母 이수진 | **오연우** 2014.11.25생 父 오경석 母 오규선 | **우상윤** 2016.01.10생 父 우도희 母 정승아 | **유정우 베드로** 2013.02.27생 父 유재형 母 배효진 | **유현서 에테니아** 2015.01.16생 父 유도원 母 이주인 | **이다빈** 2014.12.16생 父 이경수 母 전영민 | **이다현 바티다** 2016.01.09생 父 이준영 母 윤나리 | **이루원 벨라멧다** 2016.02.13생 父 이석영 母 김혜린 | **이상우** 2016.01.01생 父 이강혁 母 장근경 | **이예준 다니엘** 2015.02.21생 父 이규행 母 김윤희 | **이주혁 노엘** 2014.12.20생 父 이상호 母 윤주희 | **이준상** 2014.12.11생 父 이윤동 母 김새롬 | **이지민 프란체스카** 2015.07.16생 父 이윤세 母 조은영 | **이지한** 2015.05.26생 父 이정훈 母 김은영 | **전승민 루도비코** 2016.01.10생 父 전진용 母 유수민 | **정희성 프란체스카 살레시오** 2015.03.23생 父 정다은 母 이승은 | **채지호 보나** 2010.12.13생 父 채정길 母 강정원 | **최서현** 2015.01.01생 父 최환영 母 공명수 | **최연서 베로니카** 2015.02.16생 父 최동환 母 이은정 | **한진우 베네딕도** 2015.07.15생 父 한동석 母 김나경

네 번째 기부

김리우 올리안나 2011.02.16생 父 김현수 母 임세정 | **김재은 야고보** 2013.12.14생 父 김대현 母 김태정 | **김재희 요한** 2013.12.14생 父 김대현 母 김태정 | **김태극 요셉** 2014.03.01생 父 김준혁 母 김수경 | **박주형** 2013.11.04생 父 박세웅 母 황은애 | **배유나 소피아** 2009.08.27생 父 배중성 母 김형진 | **송이재 테오도로** 2013.12.22생 父 송진우 母 유지애 | **신소윤** 2013.02.22생 父 신용석 母 이미정 | **임지유 에디트** 2012.01.13생 父 임정훈 母 박사원 | **이다니엘** 2013.11.18생 父 이종섭 母 이혜령 | **이준희** 2013.12.15생 父 이병한 母 임소현 | **이지호 릴리안** 2012.09.06생 父 이종섭 母 이정민 | **장윤** 2013.08.20생 父 장승환 母 주소윤 | **정연우** 2014.01.21생 父 정유석 母 신경하 | **정연우 쟬마** 2012.01.28생 父 정재광 母 홍지숙 | **최성은** 2014.01.13생 父 최용석 母 이수현 | **한진우 야고보** 2012.07.29생 父 한동석 母 김나경

다섯 번째 기부

강건우 2013.01.11생 父 강성민 母 김고은 | **강시우** 2013.01.11생 父 강성민 母 김고은 | **고서연** 2009.08.18생 父 고동신 母 김현미 | **김대용 처빌로** 2004.02.15생 父 김기태 母 최서운 | **김동욱** 2013.03.02생 父 김봉재 母 장은경 | **김태근 비오** 2014.01.06생 父 김진 母 이채형 | **김해은 세례자요한** 2013.01.21생 父 김경운 母 박은선 | **류현우** 2012.03.08생 父 류만형 母 김소연 | **박수빈 클라우디아** 2012.11.01생 父 박해운 母 김지연 | **박준현 디모테오** 2012.01.31생 父 박종연 母 김정은 | **오디안 안나** 2012.09.17생 父 오상우 母 허미선 | **오세인 라파엘라** 2010.01.11생 父 오상우 母 허미선 | **오은수 마리스텔라** 2013.12.29생 父 오재필 母 김현영 | **이도현 대건안드레아** 2012.07.05생 母 백준순 | **이리원 엠마** 2014.05.14생 父 이민우 母 허윤선 | **이요한 요한** 2013.10.23생 母 백준순 | **이정민 세실리아** 2013.11.18생 父 이형석 母 광진영 | **이채원 에스텔** 2014.02.17생 父 이진호 母 정희경 | **장민서 소피아** 2013.09.09생 父 장성용 母 오영숙 | **정가현 소피아** 2012.01.13생 父 정규진 母 이인섭 | **조민재 마카벨** 2013.01.14생 父 조준일 母 진민정 | **조서후 바오로** 2012.11.27생 父 조낙기 母 조선미 | **조윤재 알로이시오** 2014.03.12생 父 조현진 母 조효진 | **주하은 클로틸다** 2014.02.13생 父 주정호 母 김동희 | **지서운** 2013.02.11생 父 지대현 母 이기랑 | **한시윤 로사리아** 2011.10.07생 父 한준석 母 고은옥 | **허상범 루카** 2014.01.11생 父 허대영 母 김정숙 | **홍준기 야고보** 2012.01.13생 父 홍성철 母 변정연

여섯 번째 기부

구민주 그라시아 2007.11.09생 父 구성관 母 박혜은 | **김주형 라파엘** 2006.11.28생 父 김성우 母 최정란 | **김지희 글라라** 2012.02.15생 父 김익균 母 김지영 | **문규림 크리스티나** 2012.02.09생 父 문현기 母 박규린 | **민세윤** 2012.02.13생 父 민정재 母 이선영 | **박소원** 2012.03.05생 父 박진우 母 박지은 | **박소이** 2012.03.05생 父 박진우 母 박지은 | **오승우 바오로** 2012.02.15생 父 오세훈 母 송지혜 | **유건민** 2010.02.25생 父 유형석 母 이지원 | **이신혁** 2010.12.21생 父 이현규 母 구혜경 | **이지후** 2012.01.31생 父 이준수 母 김혜진 | **임지유 아네스** 2012.01.31생 父 임병권 母 이정선 | **임지호 발렌티노** 2008.02.13생 父 임성익 母 김미리 | **최지인 안나** 2012.01.29생 父 최상규 母 이승은

일곱 번째 기부

김동륜 안토니오 2011.01.17생 父 김현욱 母 한주희 | **장준하 니콜라스** 2007.12.27생 父 장성용 母 오경숙 | **장현서 카트린** 2010.06.09생 父 장성용 母 오경숙 | **전상훈 스테파노** 2009.01.26생 父 전진 母 홍은주 | **정희원 돈보스코** 2010.11.22생 父 정다은 母 이승은

여덟 번째 기부

박성빈 바오로 2010.02.10생 父 박동현 母 정미영 | **이아람** 2016.01.19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아홉 번째 기부

이슬아 캐서린 2010.12.10생 父 이병동 母 김혜원 | **이아람** 2016.01.19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열 번째 기부

고민을 2015.06.11생 母 고영미

열다섯 번째 기부

김지원 루카 2014.09.20생 父 김성락 母 박민정

열여섯 번째 기부

김지원 루카 2014.09.20생 父 김성락 母 박민정

열일곱 번째 기부

이승유 콘스탄티노 2014.04.12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축일 기부

신동우 안토니오

멋진 팬들의 기부

성약가 권서경 생일기념

생일 기부

권희열 마태오 | **김은주** | **박성복 알피리오** | **박우남 잔도미니크** | **박현진 안젤라** | **이진호 스테파노** | **임소진** | **정재인 올리아나**

고인을 기억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부

故 김나연 로사 | **故 김희창** | **故 이현우 루제노** | **故 장경숙**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강인호 베드로 & 안미선 글라라 | **고재인 시몬 & 김양희 세실리아** 결혼14주년 | **김성규 요셉 & 송수진 최순루치아** 결혼20주년 | **김용진 라우렌시오 & 송영미 데레사** 결혼20주년 | **박정원 & 김지영 유디트** 결혼기념 | **백석 사도요한 & 박소정 쟬마** 임신기념 | **이승훈 베네딕도 & 이소영 루피나** 결혼기념 | **이욱형 가브리엘 & 광영은 수산나** 결혼3주년 | **임치환 & 민지혜 로사** 결혼10주년 | **주상신 레오 & 이현정 마카벨라** 결혼10주년 | **허성근 & 나정연 아네스** 결혼기념

감사 기부

김도연 가브리엘라 첫 월급기념 | **김태영 가브리엘** | **나새민 엘리사벳** 대입 기념 | **나혜수 안젤라** 모친 건강회복 기념 | **노희연 안젤라 메리치** | **류성목 바오로** 승진 기념 | **류윤민 베드로** 대입 기념 | **박상호 요한 마리아** 비단네 착의 기념 | **小熊郎子(Oguma Roko)** | **안우찬 바오로** 세례 기념 | **이미리 플로라** 취업 기념 | **이미숙 그라시아** 성탄 기념 | **이세영 마카벨** 성탄 기념 | **이한별 도미니크** 착의 기념 | **이현준 모세** 착의 기념 | **이효준 요한** 입학 기념 | **임영 크리스티나** | **잠실7동 초등부주일학교** 2017 성탄제 기념

한마음한몸 새 소식

1 서울시와 '살사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2/27(화), 자살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유가족들이 삶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데 일조하기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최형규 신부, 자살예방센터장 손애경 수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황순찬 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살사프로젝트는 '자살예방,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로 2015년부터 서울시와 4대 종교단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범사회적 자살예방운동입니다.

2 CS 생명존중활동가 대상 보듬말 교육 실시

2/28(수) 서울 명동가톨릭회관에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종합사회복지관 협의회 주최로 'CS 생명존중 활동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보고듣고말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살 관련 현황 및 심각성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자살위기자를 만났을 때의 의사소통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었습니다.

3 청소년 지구시민교육



서울 계성고 2학년 전체학급, 안성 안법고 LUX(동아리), 의정부교구 송산성당 중고등부주일학교를 대상으로 지구시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구촌의 빈곤, 인권, 환경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구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법고와 송산성당 중고등부주일학교는 교육 후 캠페인을 진행하여 지구촌의 문제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송산성당 중고등부주일학교에서는 본당 캠페인을 진행하여 신자분들이 모아주신 지구촌 빈곤 퇴치 기금을 본부에 전달했습니다.

4 아이티 현장 모니터링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본부는 지진피해 학교 재건 및 교보재 지원, 환경보호 및 재난예방, 2016년 허리케인 매슈피해 복구 지원 등의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본부가 지원한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3/4(일)부터 3/12(월)까지 현지기관(아이티 카리타스, 포르토프랑스 카리타스)과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재해로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 수원교구와 함께하는 사순시기 생명나눔 캠페인



본부는 본당에서도 생명나눔 캠페인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톨릭장기증전국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본당에 포스터와 장기기증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수원교구 생명위원회와 함께 2/25(일)부터 3/18(일)까지 매 주일 총 6개의 본당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순시기 캠페인을 통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체성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6 제33차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봉헌



2/22(목) 19시, 명동대성당에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라는 주제로 제33차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250여 명의 신자가 참석한 이날 미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생명나눔을 실천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의 숭고한 실천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봉헌되었습니다. 특히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사연 나눔을 통해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7 서울지방경찰청, 자살예방캠페인 개최



2/28(수),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찰가족과 함께하는 해피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자살예방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지키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즉석 가족사진을 촬영해 액자에 담아 증정하는 이벤트와 ‘마음돌봄 컬러링 업서 만들기’, ‘마음을 위로하는 책갈피’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8 청년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 24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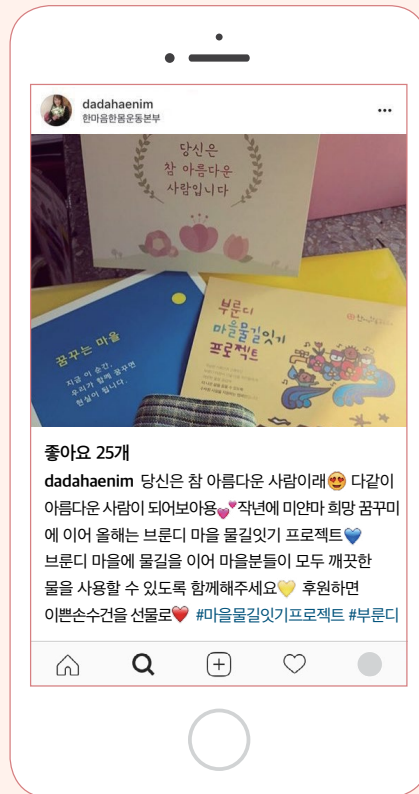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 24기가 2/9(금) 해단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구시민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띠앗누리 24기는 빈곤, 인권과 평화, 환경, 지역공동체를 주제로 4차례의 배움터를 거쳐 1/23(화)~2/6(화), 14박 15일 동안 캄보디아 캄땡고 마을에서 현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국내체험활동 및 해단식을 끝으로 전 단원이 공식적인 모든 활동을 건강하게 마쳤습니다.

9 환우지원사업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2018. 1~3. | 단위: 만 원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강OO	뇌종양	국립암센터	1,000
김OO	횡문근육종	국립암센터	1,000
임OO	구순구개열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1,000
김OO	급성골수모구성 백혈병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1,000
김OO	세포형의 급성백혈병	국립암센터	900
사OOO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목포한국병원	900
김OO	하악골 관절돌기골절	가톨릭부천 성모병원	800
허OO	만성 농흉, 폐렴	성바오로병원	800
안OO	지주막하출혈	울산대학교병원	800
이OO	조기자궁수축 및 자궁경관무력증	인하대병원	300

| SNS로 보는 나눔 이야기 |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법

-  **하루 100원 모으기** | 100원, 그 큰 나눔의 씨앗
100원짜리 동전을 모아 작은 정성, 큰 마음으로 후원합니다.
-  **생애첫기부** |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아이
소중한 아이의 생일, 그 축복을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친구와 나눕니다.
-  **기념일기부** | 내 생애 뜻깊은 날이 이웃에게도
생일, 입학, 취업 등 뜻깊은 날.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에게 나눔의 기쁨을 선물합니다.
-  **유산기부** | 가장 위대한 유산, 나눔
우리가 남긴 유산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언을 남깁니다.
-  **헌미헌금** |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미헌금 봉헌의 달인 5월과 9월, 예수님과 이웃 몫의 한 줌 쌀을 모으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  **나눔가게·나눔기업** | 내 가게를 나눔의 터전으로
가게와 기업에게는 사회공헌의 기회, 소비자에게는 일상 속 나눔 실천의 기회입니다.
-  **ARS 후원** | 가장 쉽고 빠른 나눔, 060-700-1117
한 통화당 3,000원. 사용한 전화요금 결제를 통해 후원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연락주시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법을 안내해드립니다.

02)727-2285, 2288 | obos@catholic.or.kr
www.obos.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